

## 서울과 북경의 데님웨어 스타일링 비교

노 미 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겸임교수)

김 찬 주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현대 사회에서 데님웨어는 단순히 하나의 의복종류를 넘어 젊음, 활동성, 기능성을 대표하는 캐주얼 복장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세계 대도시 젊은이들에게 있어 데님웨어는 가장 일상적인 옷으로 구입빈도와 착용빈도가 높고 개인적인 선호도가 강하다. 같은 데님소재라 해도 각 데님웨어의 스타일 및 코디네이션은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패션센스와 정서가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데님패션을 통해 같은 아시아 지역 젊은이들의 패션문화와 취향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선택하여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데님웨어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계절과 성별로 구분하여 데님웨어의 아이템 구성과 코디네이션 유형, 데님아이템 및 코디네이션 아이템의 색상과 실루엣, 디테일을 분석하여 데님웨어의 스타일링 특징을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짝수달 첫째와 셋째 주말, 서울과 북경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서 데님웨어를 입은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서울은 여자 166, 남자 169, 북경은 여자 195, 남자 134 총 664매의 사진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현재 데님패션 트렌드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데님웨어는 남, 녀 모두 계절에 관계없이 하의, 그 중에서도 팬츠로 가장 많이 입혀졌고, 이는 서울과 북경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여자의 경우 여름에는 두 도시 모두 데님스커트도 상당수 입었으나, 가을과 겨울에는 북경은 거의 없는데 비해 서울은 스커트를 계속적으로 많이 입었다. 데님하의의 전체적인 스타일 특징을 보면, 서울과 북경 공통적으로 색상은 정통 블루진 색상이, 실루엣은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정도의 일자형(straight) 스타일이, 그리고 디테일은 5 포켓의 기본형 스타일이 남, 녀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었다. 여자의 경우 약간의 스타일 차이점이 보였는데, 서울은 북경에 비해 명도가 낮은 다크한 색상과 아래로 갈수록 바지 폭이 넓어지는 플레어(flare) 스타일, 그리고 디테일이 없는 기본스타일의 빈도가 더욱 높아 데님패션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며, 북경은 라이트한 색상의 비중이 높고, 자수, 찢기, 울퉁기, 프릴, 배색, 포켓 등 여러 종류의 디테일이 많아 데님웨어에서도 개인의 기호와 장식성을 중시함을 보여주었다.

데님과 함께 입는 코디네이션 유형을 보면 서울과 북경은 성별과 계절에 따라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공통점은 남녀 모두 여름에는 데님하의와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차이점으로는 가을, 겨울의 경우 서울은 남녀 모두 특정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비해, 북경은 스타일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즉 서울은 가을에는 재킷을 많이 입고, 겨울에는 패딩점퍼를 주로 입어 데님웨어 연출에 있어 특정 유행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나, 북경은 가을, 겨울 모두 점퍼, 스웨터/가디건, 트레이닝 점퍼, 코트/반코트, 패딩점퍼 등 여러 아이템들을 골고루 입어 특정한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충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색상에서도 두드러져 서울의 경우 남녀 모두 계절별로 특정 색상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북경은 선호하는 색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두 도시 데님패션의 스타일링 차이를 보여 주었다.